

‘바지 용역업자’ 내세우고...친구인 건설사 대표와 짜고...

하천 공사 골재채취 수익금 200억대 빼돌려

광주 경찰, 골재업체 임원 등 8명 검거

저수지 준설 및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 공사를 맡고 있는 골재채취업체의 임원이 건설사 대표인 친구 등과 공모해 자신이 다니는 회사돈 수 백 억 원을 몰래 빼돌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자신이 몸 담고 있는 대표를 속여 골재채취 하도급업체를 차린 뒤 친구 등과 회사돈 200억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D개발 총무이사 박모(53)씨·D개발 전 직원 정모(54)씨와 박씨의 친구인 K건설 대표 이모(53)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장성군 삼서면 수양제 준설공사 현장 등에서 골재채취 및 판매 하도급업체를 만든 뒤 1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전 회사 부하직원인 정씨와 짜고 골재채취 및 판매 하도급업체를 차린 뒤 정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회사돈 14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D개발 대표에게 “정씨가 전 회사 직원이니, 하도급을 맡기자. 대신 수익금을 50대50으로 배분하자”고 속였으며, 정씨는 D개발을 다니면서 대표 몰래 빼돌린 5억 원으로 하도급업체를 차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 등이 이미 횡령한 돈으로 하도급업체를 만든데다, D개발 대표를 속인 점이 인정된 만큼 하도급업체 설립 이후 발생된 모든 수익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또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 대표 이사 모르게 회사돈을 빼돌린 뒤 차명계좌 30여 개를 이용해

골재채취 및 판매 수익금 70억 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친구인 K건설 대표 이씨에게 골재채취 토목공사를 맡기지 않았는데도, 마치 일을 맡긴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D개발 돈을 빼돌렸다. 박씨는 또 D개발이 K건설의 면허를 빌려 쓰고 있는

점을 악용, 공사비가 K건설로 입금되면 공사비를 위조해 13억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회사돈이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한 D개발 대표의 진정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 이 같은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규모가 비교적 작은 K건설이 골프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 만큼, 친구사이인 K건설 대표 이씨와 D개발 총무이사 박씨

가 빼돌린 자금을 바탕으로 또다른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등을 앞으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대표로서는 매일 현장에서 골재가 얼마치가 나와서 얼마에 팔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큰돈이 밖으로 새더라도 쉽게 알아채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학생 고민 해결 ‘바나나 Cafe’

광주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직원들이 11일 오후 진월동 대성여자고등학교에서 ‘학교 전담경찰관이 달려가는 바나나 Cafe’를 열고 고3학생들과 커피, 매실차 등을 앞에 두고 이야기 나누고 있다. ‘바나나 Cafe’는 고3학생들과의 차 한잔을 통해 경찰과 학생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진로, 친구, 이성 등 학생들의 고민을 함께하며 학교폭력 제로화 추구에 목적을 두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운환씨 “사찰 받았다”...인권위 제소 밝혀

경찰 “있을 수 없는 일...실형 전력 범죄예방차원 관찰”

세월호 참사 이후 경찰의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여운환(60·아름다운재단 회장)씨가 경찰의 사찰(동향보고)을 받아 왔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호남 최대 폭력조직인 국제-PJ과 두목급으로 내몰려 억울하게 실형을 살았다고 주장하는 여씨는 이번 주중에 경찰이 그간 자신의 동향을 파악해온 것과 관련, 경찰 정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부당한 인권침해로 제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11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인권

위 제소와 관련, “지금도 경찰에 내 담당이 있어서 동향보고를 계속(속) 하고 있는데, 최근 우연한 기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 전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서 서구 금호동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근 순찰차가 (내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과 얘기 나누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라고 물었더니, 이런 일(경찰의 동향 파악)이 계속 있었다고 말해줘서 알게 됐다”며 “이런 일을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른다. 가족들도 당달아 받는 연좌제식”이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들이 엄청난 부담을 갖고 살아왔다. 동향 보고를 통해 인권을 유린한다는 것은...”이라며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순찰차를 타고 와서 이런면 이웃이든 누구든 알게 되고 금방 소문나게 된다. 범법자 취급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피력했다.

그는 또 “변호사인 지인에게 ‘날 폭력배 두목으로 만들어 놓고 폭력배 두목이라고 해서 동향보고를 한다고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계속 리스트 업 하고 있다’고 푸념했더니, 인권위 제소를 알려줬다”며 “제소하면 인권위가 조사한 뒤 객

관적·타당성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권고를 하게 된다고 조연해 인권위에 제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주중(13일 안)에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근거 없는 개인 사찰은 불법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조직폭력배 등 장기 실형을 산 자에 대해선 범죄예방차원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씨의 경우 조직폭력 범죄 관련 실형 전력 등이 있고 이쪽(호남)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범죄 예방차원에서 규정에 따라 조폭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지켜보지만 할 뿐 위법적인 성격의 사찰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0 해질 19:25
달출 20:16 달몰 07:19

‘일교차 커요’
서해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끼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21/31	보성	구름많음	18/30
목포	구름많음	20/29	순천	구름많음	21/31
여수	구름많음	22/28	영광	구름많음	19/30
나주	구름많음	20/31	진도	구름많음	20/27
완도	구름많음	21/29	전주	구름많음	20/30
구례	구름많음	18/30	군산	구름많음	20/28
강진	구름많음	20/29	남원	구름많음	19/30
해남	구름많음	20/29	속산도	구름많음	20/26
장성	구름많음	18/30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0.5	서~북서	0.5~0.5
	면바다	서~북서	0.5~0.5	서~북서	0.5~0.5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0.5	서~북서	0.5~0.5
	면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생활지수

식중독	47
운동	50
빨래	9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8:24	03:13
여수	20:35	15:22
	10:02	03:53
	22:34	16:00

◇주간 날씨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	☁	☁	☁	☁	☁	☁
22/28	23/29	24/28	23/29	23/28	23/28	23/29

전국 장터 돌며 노인 등치는 노인들

한약재를 만병통치약 속여 10억 챙긴 일당 6명 붙잡아

순천경찰은 11일 전국 장터를 돌아다니며 지나가는 노인 등에게 접근해 한약재인 ‘항부자’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여·71)씨 등 60~70대 노인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전통시장 등에서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항부자’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10kg당 200

여만원을 받고 파는 수법으로 10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을 파는 사람·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한 뒤 병원에서 나오는 노인 등에게 접근해 ‘좋은 약인데, 혼자 사기에는 너무 비싸니 같이 사서 나누자’고 속여 그 자리에서 100만~200만원을 바로 지급하고 약을 사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김은종기자 eikim@kwangju.co.kr

전남교육청 교육국장 등 8명 보직 인사

교장·교감·전문직 20일께

교장이 발탁됐다.

고흥교육장에 김정덕 수복초 교장, 해남교육장에 최정락 목포임성초 교장, 진도교육장에 최동우 부영여교 교장이 임용됐다. 목포교육장에는 문현주 분청미래인재과 장학관, 광양교육장에는 민영방 교육과정과장이 맡게 됐다.

한편, 교장·교감·교육전문직 인사는 오는 20일께 정부 발령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에는 3명의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복중알가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신D 대산프리모

Advanced Partner SIEMENS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마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